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6호 【루계 제2504호】

주체107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음력 7월 15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온실농장건설 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온실농장건설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한달전 함경북도 경성군을 찾으시여 사철 푸르싱싱한 갖가지 남새를 생산할수 있는 대규모온실농장을 건설하여 도내인민들에게 안겨주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몸소 터전도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농장건설준비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또다시 현지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농장배치계획도와 현황도를 료해하시고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농장을 건축미학적으로는 물론 실리적측면에서도 나무랄데 없도록 과학적인 타산을 앞세우고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농장부지가 대단히 넓은 조건에서 이 지구에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이나 강원도양묘장과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도 같이 건설하여 이 지구를 우리 당의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정책이 집대성된 구획으로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하는 온포온실농장을 세계적인 과학기술발전추세와 온실농사와 관련한 선진과학기술자료들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세워 최상급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농장의 형식과 구성을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을 배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온실경영에 필요한 영양액비료생산기지를 함경북도에 꾸릴데 대한 문제, 토지리용률을 높이고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의 효과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온실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국산화비중을 최대로 높일데 대한 문제, 온실농장구획을 명백히 가르고 규모있게 건설하며 모든 생산건물들을 현대적인 맛이 나게 잘 건설할데 대한 문제, 강하천을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제방을 쌓고 륜환선도로를 형성할데 대한 문제, 온실농장에서 남새생산을 기계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온실과 양묘장건설 및 운영준비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과 양묘장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도에서는 온실관리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대렬을 꾸리는 사업을 선행시켜 건설이 끝나면 즉시 생산과 운영에 착수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 온포온실농장을 현대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은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온실과 양묘장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끝내고 이 일대를 황금의 땅으로 전변시킴으로써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으로 증명되고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성군에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에 접하고 청진농업대학 졸업생들이 농장에 선참으로 진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시며 그들을 높이 평가해줄데 대한 은정어린 말씀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의 전투명령을 받아안고 건설장에 달려나온 인민군대는 당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온포온실농장을 로동당시대의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최고의 수준에서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자기의 힘,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해가며 부흥하는 강국을 보란듯이 세워나가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할것이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삼지연군안의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지난 7월에 삼지연군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그동안의 건설정형을 현지료해하고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고무격려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40일만에 삼지연읍지구건설장에 와보는데 그사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고, 혁명의 고향집이 자리잡고있는 삼지연군을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산간문화도시로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백옥같은 충성심으로 높이 받들고 건설자들이 힘찬 투쟁을 벌려온 결과 드디여 웅장한 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삼지연군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발전소건설장들을 비롯한 전국도처의 건설장들에서 천지개벽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져 거창한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으며 수많은 단위들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앞을 다투며 탄생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책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전진도상에는 엄연하게 난관이 조성되고있지만 당의 부름따라 폭풍치며 일떠선 인민들의 비등된 열의로 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신화적인 기적의 력사를 써나가고있다고, 이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앙양된 기세의 일대 과시이고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조국의 위력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혁명의 고향군을 꾸리는 사업을 단순한 건설사업으로 여기지 말고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는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백두산아래 첫동네에 우리의 사회주의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교양구역을 정중성이 보장되게 잘 꾸려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한달전 과업을 주신 동상배경림형성안과 그 집행대책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소재지를 꾸리는데서 교양구획, 군급기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상업봉사구획,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건구획, 관광구획들이 명백히 갈라지게 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삼지연군 읍 구획구분과 요소들의 배치가 잘 작성계획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북방의 이 건설전투는 삼지연군 하나만 잘 꾸리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군들을 모두 문명한 군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목표를 세우는데서 경험을 창조하고 본보기를 만들고자 진행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우리 나라의 군들은 각이한 자연지리적특성과 경제적조건으로 하여 등차가 심하게 발전하였는데 먼저 표준군들을 잘 꾸려 전형을 창조하여 벌방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들의 본보기를 만들고 일반화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을 산간지대의 고유한 특성과 우리 민족성이 훌륭히 결합구현된 군으로 만들자면 군소재지를 잘 꾸린 다음 3~4년어간에 년차적으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군안의 농장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전국적인 표준군, 모범군, 방식상학단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읍지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비롯한 건설장전반을 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들의 층수에서 높낮이차이를 더 주어 소층, 다층의 배합을 실현하며 다층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을 조화롭게 련결하여 건물들사이 예술적호상성, 호환성, 련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축물들의 형식과 배치가 민족성에 기반하면서도 예술적조형화와 다양화가 흠잡을데없이 실현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림록화설계를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백두산지구 산간지대와 잘 어울리게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을 잘 배합하여 도시의 원림화, 공원화에서도 본보기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민병원을 보건위생학적으로 손색없이 꾸릴데 대한 과업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지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음료수와 생활용수의 수질을 표준수질기준대로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강구하여 물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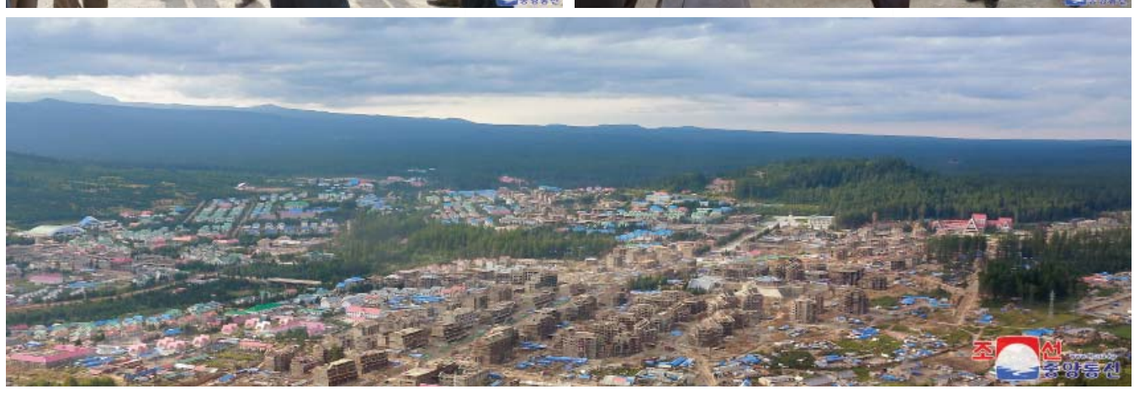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여기로 오면서 보니 새로 건설한 혜산—삼지연철길로반공사를 잘하지 못하였다고, 로반다짐상태와 평탄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술공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 렬차가 진동이 심하고 자기속도를 내지 못하게 건설한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다음해까지 철길로반보수공사를 질적으로 다시하여 혜산—삼지연철길을 표준철길로 완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을 건설한 다음 소요되는 총전력수요를 잘 타산해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는 지금 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을 정비보강하고 관리운영을 짜고들어 군자체의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베개봉마루의 전망대에 오르시여 아득한 백두의 천고밀림을 울바자로 두르고 아름다운 지상락원으로 한폭의 그림마냥 펼쳐진 삼지연군읍건설장전경을 바라보시면서 희한하다고, 도시를 방불케 한다고, 자신께서 늘 마음속으로 그려보시던 인민의 리상향, 산간의 리상도시로 저렇듯 륜곽이 황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거듭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들끓는 건설장전역을 바라보시며 당의 부름따라 지금 온 나라가 여기로 달려와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자기집뜨락처럼 정성다해 꾸리며 순결한 량심과 의리의 땀방울을 뿌려가고있다고, 백두산천지의 물이 아무리 맑고 깨끗한들 어찌 저들의 티없는 충성의 땀방울에 비기겠는가고 하시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민과 위대한 시대를 앞당겨가고있다고, 저렇듯 훌륭한 인민과 함께라면 이 세상 그 어디라도 두렴없이 갈것이라고,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장군님의 충직한 아들딸들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다해가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자신의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1년 2월 21일 인민들의 건강관리에서 의료기구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현대적인 의료기구생산을 늘이기 위한 공장을 건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몸소 공장터전을 잡아주시였으며 1972년 4월 10일에는 완공된 공장에 오시여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공장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 과학기술보급실과 공장의 여러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의료기구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년간 보건부문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거의나 하지 않고 동면하고있는 심각한 상태를 문제시하여 당 제7차대회이후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령도업적단위들을 개건현대화하여 본보기단위로 꾸릴데 대하여 당에서는 이미 여러차례의 방침을 내려보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 공장의 문턱부터 시작하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개건현대화진행중인 공장이 맞긴 맞는지, 당에서 경종을 울린지 벌써 2년이 되여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개건하고 현대화하였는지 알수 없다고 하시면서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일부 건물들은 2015년에 개건보수한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왜 벌써 이렇게 한심하게 되였는지 모르겠다고, 공장의 주인인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애를 지니고 알뜰하게 정상관리를 하지 않으니 이렇게 될수밖에 없지 않는가고 질책하시면서 보이는 그대로 의료기구공장이 아니라 좋게 말하여 농기계창고, 정확히 말하여 마구간을 방불케 한다고, 의료기구들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런 정도의 환경과 기술장비수준으로써는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절대로 생산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을 비롯하여 보건부문전반이 동면을 지내 오래한다고, 동면동물들도 한해에 한번 겨울잠을 자는데 보건부문에서는 벌써 몇해째 지써 틀어박혀 동면하면서 빈구호만 웨치고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몇년어간에 비약적으로 도약한 다른 부문들에 비하여 보건부문은 전혀 꿈틀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니 점점 더 아득하게 뒤떨어져가고있다고, 최근에 당에서 직접 틀어쥐고 꾸려준 현대적인 병원들과 보건산소공장, 치과위생용품공장을 내놓으면 보건부문에서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가 없다고, 설비현대화는 둘째치고라도 공장의 환경정리라도 제대로 해놓고 사는 단위가 없다고 추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 보건정책은 국가적인 투자, 국가적인 물질적보장을 전제로 하는 정책인것만큼 보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고 내각과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당에서 계속 강조하고있지만 일군들이 대단히 만성적으로 무책임하게 집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과학교육부를 비롯한 해당부서들에서 이 공장을 새 세기 요구에 맞게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의료기구공업의 본보기단위로 개건현대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결정지시를 받고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아 아직까지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개건현대화하지 못하였는데 중앙당 부서들부터가 당의 방침집행에 대한 관점과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공장에 대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를 바로하지 못하고있다고 심각히 비판하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도 다른 단위에 비해 잘 꾸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린것만 보아도 과학기술학습의 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보건부문 당조직들에서는 어떤 사상관점으로 접수하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집행하고있는가를 여실히 알수 있다고, 이런 곳에서 무슨 과학기술학습의 열풍이 일겠는가고 호되게 질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보건사업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이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이 사업이 차요시되고있다고, 지금 일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하나라도 보태주고 도와주어야 할 보건부문들에 사회적과제, 사회적부담을 주어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할수 없게 하고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을 반대하는 반인민적, 반당적행위나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무상치료제에 의한 현대적인 질높은 의료봉사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자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약공업과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켜 대중약품과 의료기구생산을 늘이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우고 힘을 집중함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하여주신 공장이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신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의료기구공업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본보기공장으로 훌륭히 꾸려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고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뒤떨어진것은 마스고 개변해서 앞서나가면 된다고, 락심할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손댈바에는 헐어빠진 건물이나 몇군데 보수할것이 아니라 생산환경을 국제적기준에 맞게 꾸리고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국제규격에 부합되고 품질이 철저히 담보된 성능높은 의료설비와 기구들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는 최첨단공장으로 꾸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개건현대화한 다음에는 그 경험에 토대하여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아래 의료기구공장들을 전반적으로 다 현대화, 활성화하고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함으로써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개변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혁명사적교양실도 새로 꾸리고 과학기술보급실과 제품진렬실, 문화후생시설들도 현대적미감이 나게 번듯하게 건설하며 생산건물들을 과학적인 타산밑에 훌륭히 신설하자고 하시였으며 의료기구공장들의 국산화, 자동화, 현대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연구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료기구생산에서 정밀가공장비들을 충분히 갖추고 부속품가공의 정밀도와 용접, 도금의 질적수준을 높여 의료설비들을 보기도 좋고 깨끗하며 기능도 담보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된 나라들의 의료기구들과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대비적으로 시험하면서 분석평가하고 발전시킬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지금 생산하고있는 치과종합치료기와 치과일반치료기, 안과치료기, 이비인후치료기들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설계도 잘하고 질도 높이면서 높은 수준에서 꽝꽝 생산하여 전국도처의 병원들에 보내주며 의료설비, 기구의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내밀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료기구공업의 전망적발전을 위하여 3～4년기간 년차별,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집행정형을 엄격히 총화하면서 강하게 추진시켜 우리 나라의 의료기구공장들을 선진과학기술에 토대하여 훌륭한 의료설비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들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공장개건현대화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자신께서 보건부문의 천리마는 이 공장에 먼저 보내주겠으니 한번 천리마를 타고 날며 우리 나라 보건부문, 의료기구공업부문을 선도해보라고 신심을 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령도의 손길아래 세상에 태여난 의료기구공장을 훌륭하게 변모시키고 우리 나라 의료기구공업의 새로운 개척의 한페지를 써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의 개건현대화사업은 자신께서 직접 맡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관련부문들의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고 김영춘원수의 장의식 거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인민무력성 총고문인 김영춘 조선인민군 원수의 장의식이 20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4.25문화회관 장의식장에서 고 김영춘원수의 령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있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추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령구가 발인되였다.

고인의 령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신미리애국렬사릉을 향하여 떠났다.

비파거리, 하신거리, 련못동을 비롯한 수도의 거리들에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평양시민들이 령구차를 바래웠다.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영결식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친 로혁명가를 잃은 커다란 비애에 휩싸여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령구를 향하여 《령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고 김영춘원수의 령구를 앞세우시고 렬사릉에 오르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륙군대장이 애도사를 하였다.

추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우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고인의 유해에 흙을 얹으시였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흙을 덮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화환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묘에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을 보지 못한 채 애석하게도 우리곁을 떠난 김영춘원수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유가족들, 조선로동당, 무력기관 일군들이 고인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본사기자

애국헌신의 천만리길

공화국에서 8월 25일은 선군절이다. 지금으로부터 58년전 이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고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그이의 애국애민의 선군령도에서 1990년대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당시 이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련이은 붕괴와 쏘련의 해체로 기고만장해진 적대세력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을 부르짖으며 동방의 사회주의조선에 공격의 화살을 총집중하고있었다. 류례없는 제재와 압살의 광풍이 몰아치던 그때 공화국의 인민들은 하늘처럼 믿고살던 민족의 어버이를 잃는 최대의 아픔을 당하였다.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공화국에는 혹심한 자연재해가 몇해째나 계속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이래 이때처럼 간고하고 시련에 찬 나날들은 없었을것이다. 말그대로 고난과 시련이 천겹만겹으로 닥쳐왔던 준엄한 시기였다.

조국과 인민의 생사운명이 판가름되던 그 준엄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지금은 뭐니뭐니해도 조국을 지키고봐야 한다. 사탕알보다 총알이 더 귀중하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장정의 험난한 천만리길을 헤쳐가시였다.

국력이 약하면 망국노가 된다는 력사의 교훈을 그 누구보다도 뼈에 새기신 그이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단호하고 선견지명한 애국의 선택이였다.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찾아가신 그 길에는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도 있었고 적의 총구가 지척에서 마주보이는 위험천만한 판문점에로의 길도 있었으며 한치 발밑에 천길낭떠러지가 보이는 오성산의 아찔한 칼벼랑길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철령의 험한 아흔아홉굽이도 비를 맞으시며 넘으시고 눈보라를 헤치시며 넘고 또 넘으시였다.

아이들은 즐거운 야영의 길을 떠날 때 장군님 타신 야전차는 전선으로 달리였다. 인민들이 잠에 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장군님 타신 차는 험한 령길을 넘고있었다. 쪽잠과 줴기밥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도 그 애국의 전선길에서 꽃펴난 일화이고 미끄러지는 야전승용차를 어깨로 미시면서 고지우의 전사들을 찾아가시고 전사들이 달구어놓은 불돌우에서 꽁꽁 언 발을 녹이시였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도 그 나날들에 수놓아진 력사의 화폭들이다.

한마디로 그이의 전선길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지켜 자신을 초불처럼 태우시며 헤쳐가신 눈보라만리길, 애민헌신의 천만리길이였다.

그 길에서 나라의 군력은 더욱 강해지고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굳건히 지켜지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국력을 강화하시였기에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서는 전쟁의 화염이 그칠새 없고 인민들이 피흘리며 쓰러지였지만 조선반도에서는 평화의 푸른 하늘이 펼쳐질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쟁의 불구름을 막아 지켜주신것은 이 땅 삼천리에 사는 온 겨레의 운명이였다. 하기에 남녘의 겨레는 《강위력한 선군정치로 민족의 안녕과 삼천리강토의 안전, 평화를 수호해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위대한 선군령장》이라고 흠모하였고 세계인민들도 《세계자주위업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신 **김정일**령도자의 업적은 사회주의위업, 세계평화를 수호하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으신 그이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것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앞세워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도 닦아놓으시였다.

강력한 군사적담보밑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그이의 결심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령하 30℃를 기록하는 북방의 맵짠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때로는 한여름의 폭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을 찾고 또 찾으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헌신과 로고속에 주체섬유,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경사가 련이어 일어났으며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고 태고적부터 소금밭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던 동해안에 제염소들이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도 창조되였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그때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고 귀중한 자금을 아낌없이 CNC화에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용단에 의해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운명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바치신 헌신의 로고와 쌓으신 커다란 업적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위업은 오늘 또 한분의 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그이께서 2012년 새해 첫 아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길이 빛내이실 확고부동한 의지의 발현인것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걸음을 이렇게 내짚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철령과 오성산으로부터 위험천만한 서남전선의 최남단 열점지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전군의 싸움준비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변모되게 되였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놀라운 진전이 이룩되였다.

려명거리,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거리와 교육, 문화, 보건, 체육시설물들이 도처에 련이어 솟아나 인민의 꿈과 리상이 나날이 현실로 이루어지고있다.

자강력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훌륭한 산업기지들에서 사람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생산되고있으며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져 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자력으로 만든 비행기와 지하전동차, 뜨락또르, 화물자동차들이 태여나 사람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안겨주었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에서는 《북의 경제가 성장궤도에 들어서섰다.》, 《북의 경제는 호황》이라며 공화국의 장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올해에만도 평양교원대학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개건되고 고암—답촌철길이 완공되였으며 최근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하루가 몰라보게 비약하고 전진하는 공화국의 현실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사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 4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폭염을 무릅쓰시고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진두지휘하고계신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계가 인정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지금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벌려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자신만만한 배짱과 열의에 넘쳐있다.

모진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도 절세위인이 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반드시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르시였던 오성산의 칼벼랑길

경성땅에 새기신 인민사랑의 자욱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윤택하고 문명한 식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송도원종합식료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곡산공장,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버섯공장, 류경김치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순천메기공장, 삼천메기공장, 운곡지구종합목장을 비롯한 식료공장들과 남새, 버섯, 과일, 양어, 축산기지들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보살피심과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깃들어있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구상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벌방지대보다 불리한 북부해양성기후조건에서도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도내인민들에게 풍족하게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함경북도 경성군에 대규모온실농장을 건설할것을 결심하시고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광활한 옥토를 바라보시며 여기에 100정보의 남새온실농장을 건설하면 멋있을것이라고, 이만한 온실면적이면 도내인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을것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에는 인민들의 식생활이 보다 다양하고 윤택하여지도록 마음쓰시는 크나큰 사랑과 심혈이 어리여있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통이 큰 구상을 펼치신 그이께서는 건설부지를 료해하시고 건설전망계획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할데 대한 과업과 농장건설과 운영준비에서 나서는 총적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현지지도의 날과 날을 이어가시는 그이께서는 얼마전 또다시 경성땅을 찾으시고 농장건설과 관련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알곡작물도 재배하고 수산업토대도 가지고있는 함경북도에서 남새문제가 해결되면 도내인민들의 생활은 그만큼 더 윤택하여질것이다.

사시절 갖가지 온실남새의 덕을 보게 될 함경북도인민들의 래일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달만에 다시금 그곳을 찾으신것이다.

그날 온실농장배치계획도와 현황도를 료해하시고 현지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온실농장을 건축미학적으로는 물론 실리적측면에서도 나무랄데 없도록 과학적인 타산을 앞세우고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온실농장을 수경온실과 토양온실을 배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할데 대한 문제, 토지리용률을 높이고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생산의 효과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온실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자체로 제작하여 국산화비중을 최대로 높일데 대한 문제 등 온실농장건설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포온실농장을 건설하는 사업은 함경북도인민들의 식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실농장지구에 현대적인 양묘장을 같이 건설하여 그 지구를 당의 인민적이며 애국적인 정책이 집대성된 구획으로 만들며 온실과 양묘장건설을 빠른 기간안에 끝내고 그 일대를 황금의 땅으로 전변시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으로 증명되고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성땅에 새기신 현지지도의 자욱에는 도시나 농촌이나 할것없이, 물이나 외진 섬 가림없이, 벌방이나 산간오지 막론하고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도록 하시려는 숭고한 인민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과 애민헌신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전하며 경성땅에 대규모의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이 멋지게 일떠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먼 후날에도 손색없을 본보기, 표준을 창조하시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위한 전반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분야에서 본보기, 표준을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는것이다.

평양메기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류원신발공장, 류경김치공장 등 산업시설들과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인민극장,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들이 다 그러하다.

산업시설이나 문화시설, 주택 할것없이 이 기념비적창조물들은 현대화수준에서나 선 편리성, 선 미학성 구현에 있어서 표준으로 되고 본보기로 되여 경제강국의 앞날을 보게 하고 사회주의문명의 높이를 알게 해준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창조되는 건축물들과 재부들은 먼 후날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 표준들이다.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해야 성과를 확대할수 있으며 빠른 기간에 경제를 장성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다는것이 그이의 지론이고 의지이다.

지난 1월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제약공장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제약공장들을 다 현대적으로 개건하자는것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최근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삼지연군건설을 통하여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도시의 전형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여 우리 나라 산간지대의 모든 군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과정이 지방건설에서의 일대 도약기로, 하나의 혁명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가는 그이의 령도방식은 이 땅에 기적과 비약을 낳게 하고 밝은 래일에 대한 확신과 신심을 안겨주고있다.

그이의 뜻을 받들고 전체 인민은 공장을 현대화해도, 한개 도시와 맞먹는 거리를 일떠세워도 최상의 수준, 최고의 높이에서 단기간내에 끝내고있다. 창조와 건설에서 기적을 안아오고 비약을 일으켜나가는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또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이 개발생산되고 현대적인 문화생활기지들에서 인민들의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그이께서 창조하시는 본보기, 표준들이 어떤것인가를 페부로 느끼게 해주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창조된 본보기, 표준을 기준으로, 목표로 삼고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것이다. 그것이 곧 밝은 래일을 앞당겨오는 지름길임을 잘 알고있기때문이다.

그이께서 창조하시는 본보기, 표준은 새롭고 독창적이며 철저히 자력갱생에 기초한 본보기, 표준이다.

하나를 창조하고 완성해도 우리 인민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하여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뜻이고 의지이다.

몇해전 양어부문의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평양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그이께서는 평양메기공장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한것이라고 하시였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도 모든 생산공정들마다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것을 보시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당의 현대화방침에서 중핵을 이루는것이 바로 국산화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이렇듯 하나의 본보기를 창조하여도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가 깃든것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얼마전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아무리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고 현대화된 설비라고 하여도 우리 나라 형편과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일떠서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고 도시와 농촌, 거리와 마을들이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릴 그날은 앞당겨져오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삼천메기공장

◎ 부강조국건설을 이끄시는 길에서 ◎

혼연일체의 위력으로

주체104(2015)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큰물피해를 완전히 가신 북변의 라선땅을 찾으시였다.

9월에 피해현장을 돌아보시며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서도 세상에 없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과시하자고 하시며 피해복구전투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하늘길, 령길, 배길을 달려 또다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찾으시였다.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 건설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며 건설 및 새집들이준비정형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백학동에 새로 일떠세운 마을이 볼수록 멋있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군인들이 인민들의 새집들이를 도와주는것을 비롯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귀대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불과 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선경마을이 생겨났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신 그이께서는 조국의 북변땅에서 이룩된 성과는 혼연일체의 위대한 승리이라고 하시며 군민대단결보다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런 힘이 있었기에 자연의 혹독한 전횡도 물리칠수 있었고 전대미문의 피해도 단숨에 가실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로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평안남도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찾으시였다.

병치료도 하고 관광휴식도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온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할 구상을 안으시고 그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지구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온천지구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설계로부터 온천지구주변의 국토환경개선, 산림조성에 이르기까지 온천지구개발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온천지구개발사업을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문명의 개척자인 인민군대가 맡아하여야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빠르게 진척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건설력량과 자재보장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든것을 전적으로 맡아 래년도 10월 10일까지 온천지구를 최상급으로 훌륭하게 전변시켜 국가에 기증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에서 인민들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이 사업을 혁명의 주력군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인 인민군대에 맡길것을 결심하고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인민군대는 자기의 투쟁본때, 투쟁기질로 새로운 기적과 대비약적혁신을 창조함으로써 당의 기대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본사기자

대동강반의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아서—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특색있는 급양봉사기지가 일떠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겉모양이 마치 대동강물우에 떠있는 배를 련상케 하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그 건축형식이 독특할뿐아니라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여러가지 수산물료리들과 가공품들을 봉사하는것으로 하여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을 끌고있다.

식당에 들어와 밖을 내다보면 맑고 푸른 대동강물이 출렁이고 릉라인민유원지와 5월1일경기장, 풍치아름다운 청류벽 등이 펼쳐져있어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음을 대뜸 알수 있다.

식당의 1층에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욱실거리는 실내못과 낚시터, 여러개의 식사실들이 꾸려져있는데 20여개에 달하는 실내못들에서는 철갑상어며 룡정어, 련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고급어족들과 조개류, 자라들이 어서오라 손님들을 부르고있다. 마치 잠수함이 움직이는것만 같은 근 200kg이나 되는 철갑상어들이 유유히 헤염을 치는 모습을 보는것도 즐겁지만 그 많은 물고기들중에서 자기가 먹고싶은 물고기를 직접 고르는 재미 또한 이를데 없다. 본인이 선택한 물고기를 즉석에서 료리해주는 즉석봉사실들과 각종 회비빔국수와 여러가지 수산물료리들을 봉사하는 황금해식사실, 국수식사실들은 사람들로 항상 초만원을 이루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대중식사실과 가족식사실, 민족료리식사실, 초밥식사실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식사실들과 수산물가공품들을 판매하는 매장들이 갖추어져있는 2층에서는 여러가지 맛있고 영양가높은 수산물료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하고있다.

이곳 식사실들에서 봉사하고있는 료리들은 철갑상어회, 룡정어회, 칠색송어남새합성, 잉어초밥, 문어초밥, 도미초밥 등 그 가지수만 해도 수백가지나 될뿐아니라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아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뿐만아니라 매장에서 판매되고있는 각종 통졸임류들과 철갑상어훈제, 칠색송어훈제, 련어알젓, 밥조개가공살과 같은 가공품들은 하나같이 공화국의 이름난 양어사업소들과 수산물가공공장들에서 만든 가공품들이다. 부페트식사실과 커피봉사실, 가족식사실 등이 갖추어진 3층에서도 여러가지 맛있는 수산물료리와 청량음료들을 봉사해주고있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문을 연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이곳으로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그들은 《이처럼 경치좋고 봉사수준이 뛰여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맛있는 료리들을 먹고나니 기분이 참 좋다. 마치 대동강의 푸른 물우에 앉아서 물고기료리를 맛보는것 같다.》, 《인민들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이런 특색있는 식당까지 꾸려준 내 나라가 제일이다.》며 저마다 흥분된 심정을 터놓고있다.

이곳을 찾은 외국손님들도 《료리들이 하나같이 신선하고 맛이 있다.》, 《조선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직접 보고 느끼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일떠섬으로써 아름다운 대동강반에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되였다.

본사기자 박철남

복받은 삶, 불안한 운명

얼마전 조선을 방문했던 로씨야의 한 정계인사는 국가의 혜택속에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인민들의 문명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는 조선을 보았다. 현대적인 거리들에 줄지어 늘어선 초고층살림집들에서 교원, 과학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는 현실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국가가 새 살림집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는 하나의 사실만 놓고도 조선에서 인민사랑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을 방문한 어느 한 아프리카나라 정부대표단 단장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고 하면서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지들의 설비들 하나하나가 현대적이고 의사들의 의술도 대단하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러한 병원들에서 인민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는것이였다. 돈 한푼 내지 않고 치료를 받는다는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조선에서는 병원들뿐아니라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있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여러 나라 인사들의 이 심장의 고백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활짝 꽃펴나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열렬한 찬가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서방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대문명의 표본》, 《만민평등사회》로 내세우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와 판이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 특권층이 사회적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있다. 반면에 광범한 근로대중은 항시적으로 일자리걱정, 치료받을 걱정, 집걱정, 먹고 살 걱정, 자식들을 공부시킬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로동자가 온전한 집 한채를 마련하자면 수십년동안 먹지도 입지도 않고 번 돈을 다 밀어넣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도 돈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다.

반인민적인 정치가 실시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생활방식이 사회적풍조로 되고 패륜패덕과 사기협잡, 폭력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악이 판을 치고있다.

일본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회전반을 커다란 공포와 불안에 몰아넣고있다.

지난해초 일본의 요꼬하마시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부모간의 싸움을 말린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식칼로 찔러죽이였는가 하면 얼마후에는 사이다마현에서 아들이 함께 살던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산송장취급하며 학대하던 나머지 제 손으로 살해하는 살인극이 벌어졌다.

극단한 개인주의와 인간증오사상이 만연된 일본에서는 부모가 제가 낳은 자식을 학대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이 례사로운 일로 되여버렸다.

얼마전 일본의 어느 한 시에서는 부부가 태여난지 6개월밖에 안되는 어린 딸에게 물마저 제대로 주지 않고 내버려두어 영양실조로 죽게 만든 범죄사건이 밝혀져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도꾜에서는 아버지가 태여난지 2개월밖에 안되는 자기 딸에게 자주 운다고 하여 매를 안겨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일본 오사까부에 있는 어느 한 려관방에서는 목이 잘린 녀성의 머리가 발견되였는가 하면 시가현에서도 여러 토막으로 란도질당한 녀성의 시체가 발견되는 등 소름끼치는 만행들이 때없이 발생하여 온 일본땅을 공포와 불안속에 떨게 하고있다.

인간으로서 누릴수 있는 참다운 삶은커녕 언제 어디에서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를 불안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인민들의 운명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이 될수 없다

《조미수뇌들의 악수는 이 행성에서 가장 길고 비할데없이 격렬하였던 랭전이 드디여 종식되였음을 선언하는 금세기 최고의 사변이다.》

《조미쌍방은 자기들의 약속을 과감히 실천하면서 극적인 사변들을 련속 펼쳐보일것이다.》

이것이 두달전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되고 조미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터져오른 세계의 환희와 격정이였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넘게 흐른 오늘 조미관계의 교착상태는 세인의 들끓던 기대와 열망을 안타까움과 실망으로 바뀌게 하고있다.

세계여론은 7월의 조미고위급회담이 왜 성과없이 끝났는가, 평양에서의 미국은 싱가포르에서의 미국이 아니였다, 어째서 미국의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가 《강경》하게 바뀌였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원인분석들을 하고있다.

일치한 결론은 미국이 조선의 선의와 진정을 외면하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선 비핵화》만을 고집한것이 회담을 실패에로 몰아갔다는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이상 론의할 필요조차 없을만큼 책임소재가 분명하기때문에 다시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미협상팀이 보여준 표면적행동뒤에 조미관계개선의 발목을 붙잡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분명한것은 미국내 정치싸움의 악영향을 받고있는데 현 조미관계교착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것이다.

온 나라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사회와 정치판이 리해관계를 달리하는 각이한 세력들의 각축전장으로 되고있는 미국사회의 판이한 차이점이 두 나라 관계의 전망에 커다란 심연을 조성하고있다.

소기의 성과가 없었던 지난 7월의 조미고위급회담만 보아도 미협상팀이 자국내 반대파세력의 입김에 얼마나 포로되여있었으며 그로 인한 후과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수 있다.

조미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둔 6월말 미국언론들은 별안간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을 떠들어댔다.

미국의 NBC방송, 《워싱톤 포스트》, 《뉴욕 타임스》, 《디플로매트》를 비롯한 주요언론들이 저마끔 《북조선이 최근 수개월동안 비밀시설에서 핵무기용연료생산을 늘여왔다.》, 《농축규모는 녕변의 2배인것으로 보고있다.》는 터무니없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 《정보자료》들은 트럼프대통령의 정적들에게 싱가포르회담성과를 깎아내리고 대조선접근정책을 비판하는 소재로 그리고 미국무성협상팀에 《핵시설신고와 검증》을 집요하게 내들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도용되였다.

이에 대해 CNN방송은 《최근 북조선의 비핵화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루출, 행정부내 비판론자들과의 불화, 트럼프의 협상에 대한 락관적발언에 따른 압박 등이 폼페오에게 짐이 되고있다.》고 까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협상팀이 얼마나 강한 심리적압박을 받고있었는가 하는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회담전에 있은 외부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비핵화협상의 임무는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있다.》고 실토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불행한 운명》이라는 숙명적인 표현은 미협상팀이 이미 회담전에 저들이 대화탁우에 올려놓으려는것이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요구라는것, 현 단계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예감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아닌게 아니라 국내 반트럼프세력의 독침을 맞은 미협상팀은 조미고위급회담에서 싱가포르수뇌회담때 트럼프대통령이 약속하였던 종전선언채택문제는 뒤로 미루어버린채 우리에게 일방적인 《핵신고와 검증》만을 강박해나섬으로써 협상실패라는 고배를 마실수밖에 없었다.

미협상팀을 《불행한 운명》에로 몰아간 주범은 누구인가.

무엇보다는 훌륭한 협상의 기초가 신뢰와 존중이라는것도, 상대가 누구인가도 망각하고 무례하게 접어든 자신을 탓해야 하며 다음으로는 협상팀의 리성을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 배후의 검은 악마들을 저주해야 할것이다.

당시 미협상팀이 반대파들의 여론공작에 어이없이 놀아났다는것을 여지없이 립증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얼마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성촬영사진과 정보자료를 전문으로 올리는 미국의 인터네트홈페지 《38노스》는 지난 6월말 반트럼프세력들이 《비밀핵시설》이라고 주장하여온 시설이 《핵시설》이 아니라는 명백한 론거들을 제시하였다.

《38노스》는 문제가 된 지점에는 핵시설관련건물이라고 볼만 한 사진이나 정보자료가 전혀 없고 주변환경으로 보아도 《우라니움농축시설》이라고 볼수 없다고 까밝히였다.

결국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은 조미고위급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반대파들의 비렬한 여론조작음모였던것이다.

흑백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7월 당시 미국내 반대파들이 연출한 신파극의 일부 대목을 다시 상기해보자.

당시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천연스럽게 의회에 편지를 보내여 《최근 군축전문가들은 북조선이 녕변외의 지역에 비공개우라니움농축시설을 가동하고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왔다. 북조선정권의 적극적이고 거듭되는 기만과 그것이 조미비핵화대화에 미칠 필연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걸고들었다.

또한 CNN방송,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언론들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가시적인 비핵화성과가 나올지 의문스럽다. 폼페오가 핵심현안인 핵무기페기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이 바라던대로 조미고위급회담은 결실없이 끝났고 반대파들은 쾌재를 올리면서 《공허한 비핵화약속말고는 얻은것이 없다.》고 조미공동성명을 또다시 헐뜯었으며 대조선강경립장에로 선회하라고 트럼프행정부를 공격하였다.

공화당내 반트럼프세력들도 대통령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것은 실수이다, 대조선제재를 고수하기 바란다, 외교적노력은 실패하였으며 지금은 군사력이 요구되는 때이라고 기염을 토하였다.

이처럼 대화반대파들은 날조된 《북조선비밀핵시설의혹설》로 협상팀에 몽둥이를 쥐여주고 회담파탄에로 내몰았던것이다.

지난 시기 좋게 출발한 조미대화들이 매번 실패와 파탄을 면치 못했고 클린톤 전 대통령의 담보서한과 9.19공동성명, 2.13합의가 휴지장이 되여버린것도 따지고보면 조미사이의 의견상이보다 미국정치권내의 기득권싸움의 피해가 더 컸다고 볼수 있다.

지금도 대화반대파들은 트럼프대통령과 행정부에 우리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성하며 《최대의 압박》에로 계속 몰아가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비밀핵시설의혹설》이후에는 《미싸일개발의혹설》을 조작해냈고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가 미국과 여러 나라의 기자들을 청해다 그들의 눈앞에서 진행한 북부핵시험장페기조치에 대해서까지 《의혹》을 떠들고있다.

앞으로도 그들은 저들 수중의 정보기관들과 어용언론들을 내세워 각종 의혹들을 조작해내고는 트럼프행정부의 외교행보가 꼬이도록 하는데 리용할것이다.

하기에 트럼프대통령도 《가짜뉴스》들은 자기가 말하는 모든것, 조미협상의 진전과 성과물들을 《거짓》이라고 비난하고있고 앞으로 계속 헐뜯을것이라며 침을 뱉고있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언론들의 보도를 그대로 곧이 듣다가는 《미쳐버릴것》이라고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있다.

조미관계개선과 세계평화라는 세기적위업을 달성할 《꿈》을 안고있는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적수들이 너무도 많다.

대통령을 의회가 발목잡고 사법부가 덜미를 잡고 언론이 몰아댄다.

행정부는 물론 보좌진까지 대통령과 동상이몽하고있다. 그들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판이하게 말하고 행동하고있으며 진실을 오도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놓고 본의아닌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있다.

미국의 정객들은 이 해괴한 현상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미화분식하지만 그것이 세계앞에서 미국의 위상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아메리카의 망조를 더욱 짙게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자기들의 정파적리익을 위해 대통령의 앞길을 코코에 막아나설것이 아니라 그가 미국을 대표하여 세계에 대고 한 약속을 리행하고 조미관계를 전진시킬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것이 저들이 몸담고있는 큰 그릇인 미국의 리익을 위하고 《초대국》의 체면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로서는 조미관계를 빨리 개선하는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급선무는 사분오렬되고 뒤죽박죽인 미국정치판을 바로잡는것이라고 본다.

반대파들이 득세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공동성명도 외면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한갖 정치적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관계의 전도를 락관할수 있겠는가.

교착상태에 처한 조미관계의 현 상황은 트럼프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미국력사상 그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환상적인 만남》을 성사시켜 전세계의 환호와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을수 있은것은 대통령자신도 말했듯이 반대파들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보좌관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결단과 의지대로 행동하였기때문이다.

폼페오 국무장관도 《불행한 운명》을 강요당할것이 아니라 주견과 배짱을 가지고 반대파들의 부당하고 어리석은 주장들을 단호히 쳐갈기며 대통령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명실공히 미국외교의 수장다운 지혜와 협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조미관계는 미국내 정치싸움의 희생물로 될수 없다.

조남진

단상

가을이 왔다

선기가 나는 가을이다.

백여년만에 찾아든 찌는듯 한 폭염, 끝이 없을듯싶던 무더운 삼복도 제철을 찾아오는 가을앞에 주춤주춤 자리를 내주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립추도 지나고 처서도 지나니 어쩐지 가을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갈마든다.

무더위에 지쳐서 시원한 계절이 그리워서인가.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계절이 그리워서인가. 그것만도 아니다.

보다는 이해의 가을이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례사로운 가을이 아니기때문일것이다.

이해의 가을은 여느해의 가을하고는 다르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면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런 가을이 아니다.

우리 겨레의 가슴에 남달리 소중히 간직된 2018년의 가을.

류다른 올가을에 대한 겨레의 한껏 부풀어있는 기대는 어떻게 생겨난것인가.

대결의 랭기만을 안고살아온 우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화해의 따뜻한 봄빛, 진정한 평화의 봄빛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4월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후 예술단의 주요배우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

얼마나 겨레의 가슴을 설레이게 해주는 뜻깊은 표현인가.

그때부터 이해의 가을은 겨레의 마음속에 부푸는 희망과 함께 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하기에 북남이 만나는 회담장을 비롯한 장소들에서도 이해의 류다른 가을에 대한 덕담들이 자주 오고갔다고 한다.

그때가 엊그제같은데 시간은 살처럼 흘러 6월이 가고 7월이 가고 삼복철도 지나 어느덧 가을계절에 들어선것이다. 모두가 가슴설레이며 기다려온 가을이다.

그러나 아직 북남관계에서 풍요한 가을은 마련되지 못하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북과 남의 접촉과 래왕,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있다. 겨레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하고 북남관계개선에서 제자리걸음이나 하는듯 한 현실은 참으로 민망스러운 일이다.

일이 이렇게 되고있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공화국의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비해 남측당국이 외세의 눈치를 살피면서 쉽게 걸을수 있는 길도 살얼음우를 걷듯 조심조심 건느고있기때문이라는것은 자타가 말하는 현실이다.

가을의 열매가 알찬가 혹은 쭉정이가 되는가 하는것은 그 땅의 주인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성실히 땀을 바치는가에 달려있다. 이 땅에 풍요한 평화번영의 가을을 안아올 주인은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다른 그 누가 우리 겨레에게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줄수는 없다.

풍요한 가을은 우리 겨레를 위한것이고 그의 창조자도 북과 남이다.

북과 남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다시한번 깊이 새기고 더욱 분발하고 노력함으로써 이해의 가을을 명실공히 북남관계에서 오곡백과 주렁지는 풍요한 가을로 만들어가야 할것이다.

안권일

민족의 단합을 과시한 잊지 못할 나날들

지금 삼천리에 휘몰아치는 화해와 통일의 열풍은 지난 2월 공화국이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지핀 화해의 소중한 불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날과 달이 흘러도 그때의 가슴뜨거운 화폭들은 겨레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얼마전 기자는 지난 2월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응원단으로 참가했던 박은정, 권순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올해초 남조선에서 진행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공화국의 참가로 민족공동의 대사로 성대히 치르어지면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관계개선의 물고를 터뜨리였다. 그 격동적인 화폭을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당사자들의 소감을 듣고싶다.

권순정: 사람의 한생에서 20여일은 어찌보면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짧은 나날에 나는 삼천리강토에 맥맥히 넘쳐흐르는 민족의 넋을 보았으며 북과 남은 가를래야 가를수 없는 하나의 민족임을 가슴뿌듯이 절감하였다. 지난 2월 우리 응원단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남조선 강원도를 향해 떠났다. 숙소로 향하는 전구간 길옆에 나와 통일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시민운동단체성원들, 《환영 북측응원단》, 《반갑습니다》 등의 구호를 들고 우리 응원단을 열렬히 환영한 린제시민들, 만나자마자 정이 들고 한덩어리가 된 남녘의 《아리랑응원단》, 경기장마다에 메아리친 《조국통일》, 《우리는 하나다》의 함성, 정말 이 모든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겨레만이 펼칠수 있는 감동적인 화폭들이였다.

남녘인민들은 우리 응원단 성원들을 보고 《미녀응원단》, 《평화의 사절》이라고 하면서 모두들 예쁘고 정이 가 북과 남사이 존재하던 경계심이 순간에 사라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였다.

우리 응원단이 《조국》이라고 부르면 약속이라도 한듯 수천명의 남녘군중들이 《통일》하고 화답하고 《우리는》하면 《하나다》를 웨치는 열기띤 응원모습은 북과 남이 맞잡은 손이 얼마나 굳세며 하나가 되여 웨치는 통일의 함성이 얼마나 장엄한가를 절감하게 하였다.

하기에 감격없이는 볼수 없는 이 화폭을 놓고 남조선언론들도 《마음 주고받은 〈응원통일〉》, 《손잡고 응원하진 못해도 마음은 벌써 통일됐다.》라고 하면서 동포애의 정이 흐르고 민족의 넋이 살아숨쉬는 응원단의 열기띤 응원과 공연이 올림픽경기장만이 아닌 온 남녘땅을 뒤흔들어놓았으며 통일을 바라는 마음과 마음들이 서로 합쳐져 《작은 통일》을 이루었다고 앞을 다투어 대서특필했던것이다.

기 자: 정말 그렇다. 지척에 있으면서도 불신의 장벽에 막히워 멀게만 느껴지던 북과 남이 가슴을 열고 만나고 화해의 손을 뜨겁게 잡았으니 어찌 사변이 아니겠는가. 그 격동의 나날속에 만나기만 하면 곧 통일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응원단의 체류나날이 그야말로 감격과 흥분의 하루하루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박은정: 바로 북남이 장엄한 《아리랑》의 선률속에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하던 때였다.

노래 《아리랑》에는 그리운 님과 헤여지는 슬픔, 님에 대한 그리움과 상봉에 대한 희망 등 남녀간의 애정심리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착취사회에 대한 근로인민대중의 설음과 원한, 행복한 생활에 대한 지향과 념원이 절절하게 반영되여있다.

그러던 이 노래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 한민족이 북과 남으로 서로 갈라져 살고있는 안타까움과 혈육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하루빨리 분렬의 고통을 가시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살 행복한 통일세상을 안아와야 한다는 민족의 강렬한 지향과 열망을 안고 북과 남에서 다같이 사랑을 받으며 불리우고있지 않는가.

북남의 선수단이 대형통일기를 앞세우고 서로서로 손을 잡고 개막식장에 들어설 때 올림픽경기장은 환희와 격동의 불도가니속에 빠져들었었다.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 《반갑습니다》의 웨침소리가 경기장을 넘어 온 남녘땅을 뒤흔들었고 합창으로 터져오른 《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민족이 하나가 되였음을 세계에 알렸다. 나도, 우리 응원단도 목청껏 《아리랑》을 부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그때 정말 우리는 하나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피줄도 같고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은 하나의 민족, 만나기만 해도 정이 통하고 하나가 되여 《통일》을 웨치고 《아리랑》도 함께 부르며 눈물도 함께 쏟는 우리 겨레가 왜 갈라져 살아야 하는지 분함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기 자: 그렇다. 우리 민족은 갈라져서 살수 없는 하나의 생명유기체이다.

권순정: 정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체험한 뜻깊은 나날들이였다.

서로 만나면 말이 통하고 정이 흘러 얼싸안게 되고 저절로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는게 바로 한민족, 한겨레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겨레의 통일열기가 지금 삼천리강산을 뒤덮고있는데야 조국통일이 어찌 먼 후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떠날 때 숙소 중앙홀에 있는 조선지도모양의 게시판에 저저마다 이런 글들을 기념으로 적어서 남겨두었다.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 《통일의 날 다시 만납시다.》, 《잡은 손 놓지 말고 통일을 위한 한길에서 변치 말자》, 《통일번영 내 조국 함께 모여 삽시다.》, 《오라 평양으로, 가자 서울로, 합치자 하나로》…

지금도 우리들의 손목을 붙잡고 《이제 가면 언제 또 만날가. 앓지 말고 통일의 날 다시 만나요.》, 《몸성히 다시 만나요.》하며 우릴 바래주던 숙소직원들과 린제시민들의 눈물젖은 모습들이 떠오른다.

북남이 만나고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분렬의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서로에 대한 편견과 불신의 벽도 얼마든지 녹이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펼칠수 있다는것을 나는 똑똑히 알게 되였다.

박은정: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던것처럼 통일운동에는 응당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 나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민족의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자신의 삶을 깡그리 바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기 자: 정말 좋은 결심이다. 분렬의 오랜 세월도 가를수 없는것이 민족이다. 사상과 제도가 달라도 피줄의 공통성, 력사와 문화의 공통성, 통일지향의 공통성이 훨씬 더 큰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공통된 의지가 안아온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가야 한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다.

판문점선언리행에 민족의 미래가 있다

얼마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서 북과 남은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으로 입장하여 하나가 되려는 민족의 열망을 다시금 과시하였다. 또한 북과 남의 선수들은 여러 경기종목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하여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이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감격적인 상봉이 펼쳐져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이런 감동적인 화폭들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으로 이루어진것으로서 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판문점선언을 리행하여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있게 추동해나가려는 겨레의 열의는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에서도 각계층이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리정표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판문점선언을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법》으로 삼고 그 리행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겠다고 결의해나섰다.

민중당, 민주로총을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도 판문점선언실천 자주통일대행진,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서명운동, 시민통일토론회, 판문점선언리행휘장달기, 통일문예한마당행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선언리행을 위한 각계층의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이러한 속에서 남조선 각계층은 판문점선언리행을 가로막는 제도적장치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투쟁도 과감히 전개하고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동북아련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공동선언발표 등을 통해 미국의 제재때문에 판문점선언리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미행정부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인 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며 리정표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 여기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가 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전문가들속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현 당국이 북남경제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세의 흐름에 합류할 때 민족공동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온 겨레는 선언리행을 가로막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단합을 위해 더욱 과감히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진행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의 일환으로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금강산에서 진행되고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있은 1차상봉기간 우리측 가족, 친척들은 남녘의 혈육들을 만나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회포를 나누었다.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은 우리 적십자회가 마련한 연회에 참가하였다.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2차상봉은 24일부터 진행된다.

본사기자

반통일역적무리들의 추악한 망동

최근 남조선에서 북남수뇌상봉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의 《국회》동의문제가 론의되고있는 가운데 보수야당들이 《선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를 집요하게 반대해나서고있다.

지난 16일 남조선당국과 여야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동의문제가 제기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것들은 《실질적비핵화의 진전》, 《시기상조》를 떠들며 거부해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다음날 언론인터뷰에서 북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는 한 판문점선언의 《국회》동의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국회》동의요구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속에서도 《정부가 대북경제협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립법부가 뒤받침해달라는것과 다를바 없다.》고 줴쳐댔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동의를 거부하고있는 보수패당의 행태는 북남화해와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바라지 않는 반통일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낸 추악한 망동이다.

북과 남이 서로 뜻과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의 새 력사,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렬, 평화와 전쟁에 대한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보수패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동의를 한사코 가로막고있는것은 저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동족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반통일역적무리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여주는것이다.

반통일무리가 다른게 아니다. 현시기 온 겨레와 세계가 일치하게 지지찬동하는 판문점선언을 부정해나서는게 바로 반통일역적무리인것이다.

지난 시기 내외가 한결같이 지지찬동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이 진통과 좌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것도 《자유한국당》과 같은 보수패당의 악랄한 방해책동때문이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적무리들의 반통일책동을 짓뭉개버리지 않는다면 판문점선언이 순조롭게 리행되여나갈수 없으며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가 또다시 우여곡절을 겪을수 있다.

하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민주개혁정당들과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의 항구적평화체제구축에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 《남북관계의 안정적관리와 지속적발전을 위해 〈국회〉동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수야당들을 몰아대고있다.

판문점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그 리행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남관계개선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나서는 보수패당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약하고 민족의 총의가 담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동의를 해달라고 보수패거리들에게 청탁할것이 아니라 반민족적, 반통일적망동을 일삼는 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척결하며 선언리행에 배치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일본은 과거청산이 없이는 한치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담화

잔악무도한 일본강도배들이 《한일합병조약》이라는 불법무법의 침략문서를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했던 때로부터 어언 108년이 흘렀다.

세월은 모든것을 망각속에 묻어버린다고 하지만 세대가 몇번이나 바뀌고 한세기가 지났어도 일제침략자들이 이 땅을 타고앉아 저지른 특대형범죄와 온갖 악행들은 오늘도 우리 민족의 가슴을 사무친 원한과 복수의 피로 끓게 하고있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줴쳐대며 발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총으로 쏘아죽이고 칼탕쳐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죽이고 불태워 죽이고도 모자라 사람의 고기를 육식까지 한 야수의 무리들, 사람의 목을 베는것을 도락으로 여긴 천하의 야만들이 바로 인간의 탈을 쓴 일본사무라이들이였다.

인류력사에 식민지통치사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어도 왜나라족속들과 같이 타민족을 잔혹하게 살륙하고 마소처럼 착취하였으며 왕릉까지 파헤치면서 재보와 자원을 략탈해간 극악무도한 무뢰배는 있어본적 없다.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전쟁터와 고역장으로 강제로 끌어가 혹사시키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전쟁터에 성노예로 끌고다니며 꽃같은 청춘과 정조를 무참히 유린한 야수들을 천만년 세월이 흐른들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구천에 사무친 령혼들의 원한이 비가 되여 내린다면 저주로운 섬나라를 수장해버리고도 남을것이다.

일본의 침략무리들이 삼천리강토에 검은 마수를 뻗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과 같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70여년간이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는 비극자체가 생겨나지도 않았을것이다.

실로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만고죄악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구천에 사무친것이여서 침략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이어가며 석고대죄해도 원한이 풀리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반동들은 짐승도 낯을 붉힐 치떨리는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할대신 날이 갈수록 후안무치하게 놀아대여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아베는 집권 6년동안 1993년이후 일본의 력대 수상들이 전범국의 죄의식으로부터 표명해온 《가해》, 《반성》, 《책임》이라는 말을 한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올해 8.15패망일에도 반성은 커녕 특급전범자들이 매몰된 야스구니진쟈에 공물료를 바쳤는가 하면 우익반동들을 무리로 보내여 참배놀음을 벌려놓으며 군국주의광기를 극구 고취해댔다.

과거지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관련한 증언들도 《허위》, 《날조》이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더는 없다고 공공연히 줴쳐대고있는것이 바로 일본반동들이다.

더욱 용납할수 없는것은 아베일당이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기는 고사하고 산같이 무거운 죄악우에 새로운 죄악을 덧쌓고있다는것이다.

평화헌법개정을 《필생의 과제》로 내걸고있는 아베는 교전권과 군대보유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존재규정을 추가하는 개헌을 가까운 년간에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떠들어대면서 이를 다가온 자민당총재선거에서의 유세기발로 내흔들고있다.

이미 《주변유사시법》,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해외군사진출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마련해놓은데 이어 우리의 《핵,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전투기들, 공중급유기들을 보유하고 중장거리미싸일능력확장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이 아닐수 없다.

일본반동들이 천벌맞을 과거죄악은 당반우에 올려놓은채 그 무슨 《랍치자문제해결》이니 뭐니하며 조일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떠들어대는것은 족제비도 낯을 붉힐 요사이다.

우리 민족의 수백만생명을 무참히 도륙낸 대죄악에 대해서는 입을 뻑 씻고 서너명의 《랍치자》문제를 요란스레 광고하는것은 상식에도 비례도 맞지 않는 어불성설로서 죄많은 가해자가 《피해자》흉내를 내보려는 쪽발이특유의 간특한 둔갑술에 지나지 않는다.

어디다대고 감히 피로 게발린 더러운 낯짝과 죄악에 쩌든 마수도 씻지 않고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접어들자고 하는가.

우리는 일제의 과거청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섬나라족속들의 검은 속통이 세척되지 않는 한 광활한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을것이며 그에 대해 추호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군국주의광증으로 달아오른 일본은 죄많은 과거를 부둥켜안고서는 미래로 나갈수 없다는것을 통절히 깨달아야 한다.

언제까지 사죄와 배상의 력사적책임을 다음세대의 어깨우에 유산처럼 물려주며 만인의 저주속에 살아가겠는가 하는것이다.

지금은 아시아태평양시대이다.

조선반도에서 조성된 새로운 평화의 기류가 세계정치정세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력학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있는 때에 유독 일본만이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밥의 도토리마냥 취급되고있는것은 제자신이 스스로 초래한 수치이고 비극이다.

지금처럼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군사대국화책동에 더욱 미쳐날뛰다가는 국제사회의 배척정도가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력사의 격랑에 삼키워 태평양 깊숙이 침몰하게 될수 있다.

일본은 과거청산이 없이는 한치도 미래로 나갈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체107(2018)년 8월 22일
평 양

민생파탄과 경제위기의 근원은?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고 하는 삼복이 지나고 더위도 한결 누그러져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차츰 활기가 피여난다.

하지만 대지를 삶아내는듯한 열풍보다 더한 경제난으로 하여 이남민중의 마음이 더욱 메말라들고 한숨소리만 높아진다는 소식은 우리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미국이 벌려놓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더욱 높아진 관세장벽으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이남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있으며 련쇄반응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민생형편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때를 만난듯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경제난과 민생고의 원인과 책임을 현 《정권》의 경제정책과 무능때문이라고 삼년 가물끝에 비를 만난 개구리들처럼 왁작대고있다.

사실 이남의 《국내총생산액》과 거의 맞먹는 력대 최악의 가계부채, 물가와 집값상승 등은 리명박의 《공약》중의 하나인 《747공약》이나 《치적》으로 자랑하던 《4대강》공사, 《청년들은 중동으로 가라.》고 하던 박근혜의 《로동개혁》과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개혁》이 몰아온 후과이고 그 후유증이다.

더우기 박근혜《정권》은 남북경제협력사업들도 외세에 추종하며 무지막지하게 막아버려 수백개의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생활고의 벼랑턱으로 내몰았다.

경제전문가들도 《부실한 경제상황의 시작은 금융위기를 가져온 김영삼〈정권〉부터이고 최대의 악화는 〈리명박근혜〉시기였다.》라고 평하고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도 이남민중이 겪고있는 민생고, 경제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그들의 반인민적경제정책들을 비호두둔하면서 호의호식해온 무리가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수《정권》이 빚어놓은 빚더미, 재앙덩어리를 걸머지고 안깐힘을 쓰는 현 《정권》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있으니 말그대로 강도가 강도다 하는 격이다.

처방은 명백한것이다.

기울어진 민생과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도 보수적폐세력은 깨끗이 청산돼야 한다.

재중동포 박미연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를 주장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박근혜《정권》시기 이루어진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이 《화해, 치유재단》 사무실운영비와 직원인건비로 충당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인권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 대리되거나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는 남은 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죄를 받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박근혜《정권》이 남겨놓은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것을 리행하지 않는다는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시대착오적인 망동

얼마전 미국은 공화국과의 《비법적인 거래》를 운운하며 주변나라들에 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하였다. 비렬한 추가제재놀음을 벌리면서 미재무장관은 《미국은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조선제재를 가할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추가제재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여 북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 《북과 해상거래를 하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그것이 조미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와 협상에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평하였다.

공화국과의 《비법적인 거래》를 운운하며 조선반도주변국들에 대한 미국의 추가제재놀음은 그대로 대화상대에 대한 무지와 몽매가 빚어낸 비극이다.

미국은 아직도 저들의 제재와 압박이 두려워 공화국이 대화의 길에 나섰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고있는것 같은데 그자체가 오산이다. 따지고보면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소동은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난 세기로부터 시작되여 장장 수십년에 걸쳐 오늘까지 지속되는 미국의 비렬한 제재와 압박소동은 자력자강의 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의 의지와 결심을 더욱 굳게 해줄뿐이였다.

자주와 민족적존엄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공화국은 자기를 압살하려고 날뛰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압력과 경제제재소동을 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물리쳐왔다. 오늘에 와서는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자력자강의 나라로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평양시에 한해에 한개의 거리가 생겨나고있다.》, 《불과 몇년전에 보았던 북조선이 맞긴 맞는가.》…

세기를 주름잡으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분과 초를 다투며 변화발전하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최근 공화국을 다녀간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한 발언중의 일부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미국이 마치도 저들이 쳐놓은 제재의 그물에 구멍이 생겨 공화국이 발전하는것처럼 아부재기를 치며 추가제재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어리석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것은 세인을 감탄케 하며 비약하는 공화국의 발전상에 겁을 먹고 지르는 아우성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신뢰를 기초로 하는 대화와 불신을 바탕으로 하는 압박은 량립될수 없다.

지난 6월에 마련된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인 조미수뇌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공화국과 미국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앞에서는 대화를 떠들고 뒤에서는 대화상대방을 해치는 제재놀음에 매여달리는 미국의 이중적인 책동은 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는것으로서 이미 낡아빠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수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수십년간 지속되여오며 쌓이고쌓인 조미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두터운 앙금을 해소하자면 호상신뢰와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행동하는것이 옳바른 문제해결책이다.

미국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은채 《선 비핵화》와 대조선제재와 같이 타방에게 강요하고 내리먹이는 강도적요구만 하는것은 공화국에 절대로 통할수 없다.

그 누구든지 변화된 대세의 흐름을 보지 못한채 미국의 강권과 압력에 못이겨 《선 비핵화》와 대조선제재소동에 동조하고 편승한다면 문제해결을 더 꼬이게 만들고 그들자신이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게 될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불신과 대결의 어두운 과거를 털어버리고 평화와 번영, 발전의 새로운 조미관계의 력사를 써나가려면 제재놀음과 같이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는 어리석은 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리천봉

남잡이가 제잡이되다

남을 잡으려고 판 함정에 제가 빠진다는 말이 있다.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에 신통히도 들어맞는 말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법원은 드루킹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구속령장을 기각하였다. 한편 드루킹특별검사팀은 특검은 더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특검연장을 포기하였다. 특검이 시작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13차례의 특검중 스스로 기간연장을 포기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매우 이례적인것이라고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들과 각계에서는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할 특검》, 《〈자유한국당〉의 강짜에 마지못해 진행된 특검》이라는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이번 특검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초불민심으로 운명의 막바지에 몰려있던 《자유한국당》은 드루킹사건이 터지자 범잡은 포수마냥 으시대며 그것을 구실삼아 집권여당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저들의 인기를 올려보려고 획책하였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여 단식롱성을 벌리면서 너무 치사스럽게 놀아대여 한 주민으로부터 주먹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한것은 그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있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떼질에 드루킹사건에 대한 특검은 시작되였지만 결과는 역적당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내세워 온갖 힘을 다 쏟아부었지만 정작 결과는 저들의 죄과를 폭로하는것으로 되였다.

특검수사기간 드루킹이 200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 대글조작조직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서울 룡산의 전자제품상점들에서 거액의 돈을 들여 대글기계를 200대나 사들이고 이 운영을 이웃나라의 조직폭력배들에게 맡겼으며 그 대가로 수십억원을 지불하였다는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의 여론조작은 드루킹사건을 통해서만 터진것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당시 박근혜《새누리당》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의 핵심인물이 《매크로》를 통해 대글조작을 했고 여기에 관여한 인물이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에서 근무까지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였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벌린 여론조작범죄를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들고일어나고있다.

결국 드루킹사건을 걸고 남을 물어메치려던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제가 물리는 격이 되고말았다.

할 말이 없으면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진상이 드러난 저들의 여론조작범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눈만 굴리고 드루킹사건을 여전히 물고늘어지며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게두덜거리고있다.

남을 잡으려다 제잡이로 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비단 이뿐이 아니다.

지금 남조선경제는 말이 아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실업률증대, 오르는 물가로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경제가 그렇게 된것이 현 당국과 여당의 경제정책에 있다고 피대를 돋구면서 저들이 요구하는대로 정책을 바꾸고 경제관련부분들의 인물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말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무리들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있다.

적폐세력으로 초불투쟁의 대상이 되여 시대밖으로 밀려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력사의 오물들이 살아 발악할수록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 경제문제의 해결도, 북남관계개선도 제대로 실현될수 없다.

청개구리마냥 민족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거꾸로 온갖 못된짓만 골라가며 저지르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반역무리들은 제가 판 함정에서 영영 솟아나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우주군사화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미국 부대통령은 국방성청사에서 한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화국을 걸고들며 《미국의 적들이 새로운 무기들로 우주에서 전쟁을 벌리기 위해 일해오고있다.》, 《우주를 전쟁령역으로 변화시키고있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이에 앞서 미국방성은 의회에 우주군창설방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추진문제를 론의하는데 착수하였다.

미국의 현 행정부는 지난 3월 《미국에 륙해공군과 대등한 수준의 우주군이 필요하다.》고 공언한데 이어 6월에 진행된 미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국방성과 합동참모본부에 우주군창설을 지시한바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우주조약을 비롯하여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국제법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전이다.

미국이 우주군창설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화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우주무기개발과 미국의 우주체계 및 기구들에 대한 《위협》설은 저들의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우주군사화책동을 합리화하려고 고안해낸 한갖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인류공동의 령역이며 재부인 우주공간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쟁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우주군사화책동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평화적인 우주공간에 살인적인 핵수단들을 비롯한 전쟁장비들을 항시적으로 배비해놓고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지역에 군사적공격을 가하려는 미국의 흉악한 속심이 드러난지는 오래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우주핵전쟁계획》을 꾸미고 은밀히 추진시켜왔다. 호전적인 레간정권이 출현한 후 그것은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쳐졌다.

레간행정부는 《별세계전쟁》계획을 발표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책동하였다.

최근시기 우주군을 창설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범죄적인 《별세계전쟁》계획을 재현하려는 위험천만한 책동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의 우주군사화책동을 두고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미행정부가 〈별세계전쟁〉계획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우주패권경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고 평하고있다.

세계의 언론들도 《우주전체를 통제하려는 야심의 발현이다.》, 《지금까지 우주는 평화를 유지하여왔고 유엔도 우주의 군사화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있다.》고 하면서 강력히 비난해나서고있다.

지구는 물론 우주공간까지 타고앉아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책동으로 하여 평화로운 우주가 군비경쟁마당으로 전락되고 인류의 머리우에 무서운 참화를 들씌울 새로운 랭전기운이 더욱 팽배해지고있다.

미국은 모험적인 우주군사화책동이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파멸을 면할수 없으며 방대한 군사비부담으로 하여 경제적으로 더욱더 헤여날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현 행정부는 허황한 《별세계전쟁》계획을 세우고 700억US$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가 인류의 비난만을 들쓰고 참담한 실패를 면치 못한 레간행정부의 교훈을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이 무모한 우주군사화책동에 매여달릴수록 강력한 국제적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며 지구상에 존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방송

보수패당의 조작행위를 폭로

16일 남조선《KBS》방송에 의하면 2012년 《대통령》선거시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론조작을 감행한 사실이 폭로되였다.

《새누리당》은 후보였던 박근혜년에게 당선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인터네트홈페지를 통한 여론조작행위에 매달렸다.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새누리당》선거대책위원회의 외곽단체인 《서강바른포럼》에서 이를 적극 실행하도록 하였다.

《서강바른포럼》은 자동입력프로그람을 리용하여 2012년 당시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1 340차례나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으며 박근혜년을 미화하는 글은 950여차례 올렸다고 한다.

《서강바른포럼》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토하면서 여론조작에 《포럼동서남북》이라는 단체도 동원되였으며 《새누리당》소속 《국회》의원 리정현, 전 인천시장 류정복 등 친박계의 핵심인물들이 관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본사기자

왕건왕릉, 삼계탕, 박연폭포…
개성관광의 이채로움

요즘 사람들속에서는 국내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화제에 오르고있다. 백두산지구참관, 칠보산관광, 개성지구관광, 금강산관광, 묘향산관광, 해수욕관광, 평양시내관광…

얼마전 조선국제려행사를 찾았던 우리는 개성시에 대한 1박 2일동안의 관광을 떠나는 손님들과 함께 고려인삼의 산지이며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시로 향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우리는 세계문화유산들인 왕건왕릉, 선죽교, 표충비, 만월대와 같은 오랜 력사유적들을 차례로 밟아보며 력사의 풍운을 거슬러보았다.

개성지방의 유명한 음식점들에 들려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다는 여러첩반상기에 신선로 그리고 6년생 조선개성고려인삼을 넣고 만들었다는 삼계탕을 먹는 기분은 이루 다 표현할수 없었다.

슬며시 밀면 삐거덕 소리가 나며 열리여지는 민속려관의 솟을대문안에서 받아안은 감흥도 컸다.

마루바닥에 앉아 옛 시도 읊어보며 이 호실, 저 호실 손님들과 한자리에 모여앉아 오락회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며 지새운 밤은 또 그것대로 우리에게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개성관광의 2일째 되는 날 우리는 오늘날 자기의 옛 모습을 되찾은 령통사를 거쳐 우리 나라의 3대명폭포의 하나인 박연폭포에 들어섰다.

박연폭포는 다른 폭포보다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물소리 또한 요란할뿐아니라 뽀얀 안개를 일으켜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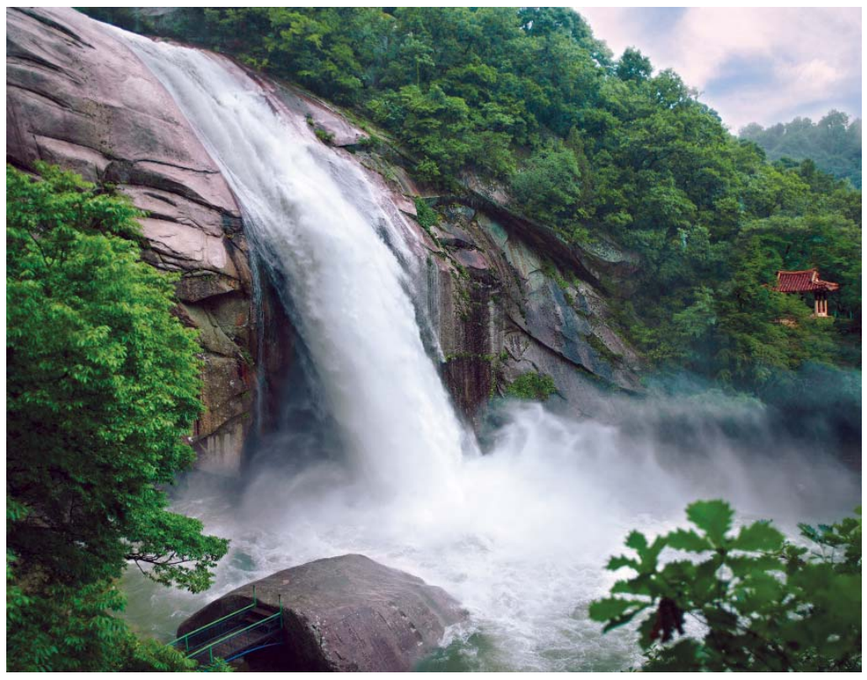
싱그러운 풀냄새, 그윽한 꽃냄새 떠도는 잠풍한 날에 송도3절로 알려진 16세기 전반기의 녀류시인 황진이가 머리태에 물을 찍어 바위우에 아름다움을 구가했다는 박연폭포를 마주하니 감회도 깊었다.

어느덧 1박 2일간의 개성관광일정을 마치고 뻐스에 오른 모두의 얼굴마다에는 아쉬움이 력력했다.

최근 조선국제려행사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려행사에서는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서가 아니라 평양역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곳에서 관광손님들을 친절히 맞이하고 바래우고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살림집과 관련한
우리 민족의 례의도덕

예로부터 조선민족은 례의도덕이 밝은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우선 이웃에서 살림집을 짓거나 집들이를 할 때 온 마을이 떨쳐나와 도와주는것을 례의도덕으로 지켜왔다.

지난날 살림집을 짓는 일은 한 가정의 몇몇 성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을에서 어느 한 가정이 살림집을 지으면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으며 그렇게 하는것을 례절로 여기였다. 집을 지을 때 서로 돕는 일은 그 누구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덕의리에 기초하여 진행되였다.

살림집이 완공되여 집들이를 할 때에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떨쳐나와 이사짐을 날라주면서 새집들이를 축하해주었다. 그때 사람들은 새살림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성냥이나 바가지 등을 기념으로 주기도 하였다. 그러면 주인집에서는 그에 대한 답례로서 간단한 음식을 차려 대접하였다.

그리고 방안출입과 리용에서도 례절을 지켰다.

살림집을 리용하는 과정에 방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밖에 벗어놓고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며 밖으로 나올 때에도 역시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될수록 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리고 방을 리용할 때에는 방의 뜨뜻한 아래목은 웃어른들에게 권하고 젊은 사람들은 웃목이나 웃방에 자리를 잡는것을 례절로 여기였다.

이것은 웃사람들을 존경하며 그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그대로 반영한것이였다.

본사기자

력사유적
금강산 보덕암

보덕암은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 내금강 만폭동에 있다. 하나의 구리기둥에 의지하여 산중턱 벼랑에 한칸으로 지은 독특한 형식의 사찰이다.

보덕암은 표훈사에 속한 암자인데 고구려때 처음 세워진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지금의 건물은 1675년에 고쳐지은것이다.

현재 건물이 의지하고있는 구리기둥과 건물을 바위에 붙잡아 맨 쇠줄은 1511년에 설치한것이다.

보덕암은 원래 본채와 판도방(절에서 불도를 닦느라고 중들이 모여 공부하는 방)의 두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었다. 본채는 길이 3.35m, 너비 0.85m의 마루바닥집인데 단칸이면서도 지붕을 세겹으로 이었다.

맨 아래에는 겹처마의 합각지붕을 얹고 그 우에는 박공이 앞으로 난 배집지붕을 올린 다음 맨우에 우진각지붕을 이어댔다.

보덕암의 본채는 그뒤의 보덕굴과 련결되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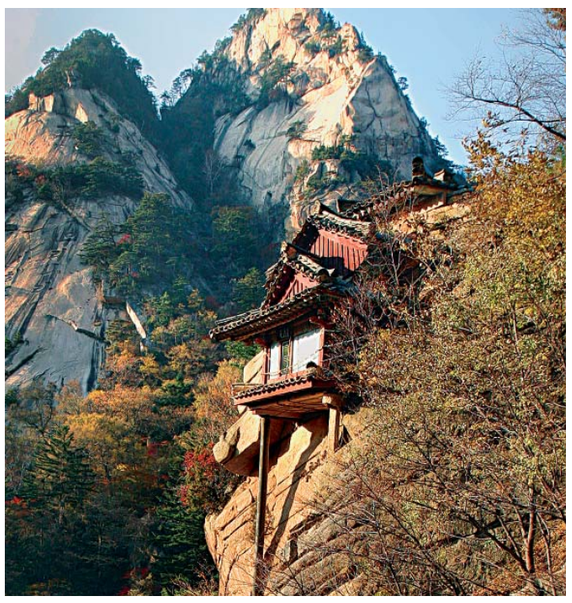
보덕굴은 깊이 5.3m, 너비 1.6m, 높이 2m의 자연굴이다.

금강산에는 보덕굴과 관련한 여러가지 전설이 전해지고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가지가 마음씨가 착하고 가난한 집 딸 보덕각시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이 굴에서 살았다고 하여 보덕굴이라고 한다는것이다.

보덕굴아래 만폭동개울가에는 보덕각시가 머리를 감았다는 세두분이라는 샘구멍이 있고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보덕각시가 세수를 하고 수건을 걸었다는 수건바위가 있다.

벼랑중턱에 기묘한 건축술로 세워진 보덕암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잘 보여주는 가치있는 문화유산이다.

본사기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알록반죽자기제조술

고려시기(918—1392)에 나온 알록반죽자기제조술은 우리 민족이 창조한 귀중한 문화적재부이다.

이 제조술은 자연의 색조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독특한 자기공예법으로서 현재까지 그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서 계승되고있다.

알록반죽자기공예는 여러가지 색갈을 내는 바탕흙을 지짐모양으로 겹겹이 쌓은 다음 비틀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빚은 다음 소성로에서 구워 자기를 만들어내는 도자공예이다.

자기의 조형예술적형상에서 섬세한 률동, 예술적환상에로 이끌어가는 무늬와 자유분방하면서도 째인 문양, 물결, 바람, 구름과 같은 알록무늬는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있다.

본사기자

건강상식
코골기와 건강

코는 사람은 피속의 산소포화도가 낮다.

때문에 산소가 결핍되여 기억력이 점차적으로 쇠퇴되거나 지어는 너무 일찍 로쇠될뿐아니라 심한 경우 질식할수도 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성들의 코는 비률은 녀성의 12배나 된다고 한다.

코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35살부터 뚱뚱해지기 시작한다.

코를 골면 여러가지 질병이 생겨날수 있다.

코를 심하게 골아 건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수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조직을 끊어 곧게 펴놓음으로써 공간이 생기게 해야 한다.

그러면 잠잘 때 기체가 거침없이 류동되여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므로 코고는 현상을 없앨수 있으며 여러가지 질병들도 막을수 있다.

본사기자

코를 고는것은 잠을 자면서 호흡할 때 숨길이 일시적으로 막혀 기체의 류동이 연구개를 진동시켜 생기는 현상이다.

코고는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휴식에 영향을 줄뿐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해롭다.

일반적으로 코고는 사람들은 고혈압병이나 기타 심장혈관질병에 걸릴수 있다.

유모아
할아버지의 손자교양

한 늙은이가 어린 손자를 교양하였다.

《애야, 이제는 다 큰 애가 온종일 장난질만 하고 집일을 전혀 하지 않으니 어디에 쓰겠니? 무슨 일이나 좀 배우거라!》

《난 아직 어린데요 뭐. 무슨 일을 할수 있겠어요?》

《9살인데두 어리다구? 난 5살때 보를 잡고 밭을 갈았다.》

《거짓말! 5살때 어떻게 보잡이를 해요? 키가 모자라는데…》

《난 걸상에 올라서서 보를 잡았다.》

《거짓말!》

《거짓말이라구?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렴. 네 아버지가 그때 앞에서 소를 몰았단다!》

사화
령마를 길들인 소년 (4)

글 황원철, 그림 김영희

2

다음날 이른새벽이였다. 푸릿푸릿한 새벽공기를 헤가르며 말을 탄 두사람이 청계골로 들어가고있었다.

한사람은 박달족의 족장 환웅이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호위군사였다.

환웅은 어린 단군이 령마때문에 청계골을 드나든다면 필경 샘터주변에 있을것이라고 추측하고 말이 샘터에 내려오는 이른새벽때를 택하여 호위군사와 함께 길을 떠난것이였다. 새벽이슬에 젖기 시작한 골안은 고즈넉한 정적속에 싸여있었다.

어느덧 그들이 샘터에 다달았을 때였다. 앞장섰던 호위군사가 갑자기 뒤돌아보며 말했다.

《족장님, 저기 샘터의 나무가지에 흰옷이 걸려있소이다.》

환웅이 바라보니 정말 수정같은 맑은 물이 찰랑찰랑 웃도는 샘터우에 그리 크지 않은 소나무가지가 한가닥 드리웠는데 그 가지우에 어른이 입을만 한 크기의 흰옷이 한벌 걸쳐져있었다. 그것도 그냥 걸쳐져있는것이 아니고 큰대자모양으로 량팔소매자락을 넓게 펴서 걸쳐놓은것이 꼭 사람이 나무가지우에 엎드려있는것 같았다.

《아… 아니. 저건, 저건…》

환웅은 눈이 커져 말을 더듬거렸다. 야생마가 물마시는 샘터에 사람의 옷을 걸쳐놓았으니 말이 여기로 내려오기는 만무한것이요, 이는 결국 환웅이 령마라고 일컬은 야생마를 청계골에서 멀리 쫓아보내자는 음심이 아니겠는가.

《당장 저걸 벗겨오너라.》

호위군사가 허겁지겁 달려가 나무가지에서 옷을 벗기려는 때였다.

《그 옷을 가만 놔두세요.》

챙챙한 소년의 목소리가 호위군사의 손을 나꿔채듯 울렸다. 호위군사는 물론 환웅도 멈칫하여 소리난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데 샘터에서 조금 떨어진 수풀에서 한 소년이 총알처럼 달려나왔다.

작지만 오돌지게 여문 몸매, 새벽의 어스름속에서도 영민하게 반짝이는 두눈… 그 소년은 다름아닌 아들 단군이였다.

《아니, 아버님!》

가까이 다가와서야 환웅을 알아보았는지 단군은 저으기 놀라는 태도였다.

1년만에 보는 아들인지라 응당 반가움에 젖어야 할 환웅이였으나 그의 심사는 그렇지 못했다.

《저게 네 녀석이 한짓이렷다?》

옷을 가리키며 묻는 환웅의 우렁한 목소리에 골안이 드르릉 울리는듯했다.

《…》

《네 이놈. 밤잠을 잊고 무예에 열중할 대신 령마에 정신이 팔려 매일밤 쏘다니더니 이젠 무슨 흉심으루 저런 거적때기같은걸 여기에 걸어놓았느냐. 장난도 유만부동이지. 이 엉치에 뿔난 못된자식 같으니라구.》

환웅은 노여움이 충천했다. 단군이 이제 겨우 11살이니만치 환웅은 단군의 소행을 단순히 장난으로만 여긴것이였다.

아버지의 말에 억울한듯 단군은 항변했다.

《장난이 아니와요. 전 야생마를 잡자고 했을뿐이와요.》

《뭐라구?! 너 그게 단순한 말인줄 아느냐? 그 말은 령마다, 령마. 너 같은 철부지에게 잡힐 말이 아니란 말이다.》

환웅은 더욱 기막혀했으나 단군은 또박또박 얘기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 그 말이 령마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으나 예로부터 큰뜻 품고 나선 사람에게는 하늘도 길을 연다고 한줄로 아옵니다. 더구나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으뜸가는 무사가 되고저 무술을 닦는 저로서는 능히 뛰여난 준마로 길들일수 있는 말을 손에 넣기 위해 노력도 아니해보고 물러섬은 당치 않은줄로 생각하옵니다.》

《음.》

한참동안 말없이 단군을 바라보던 환웅은 어성을 낮추어 물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른들이 달라붙어서도 잡지 못한것을 어린 네가 어떻게 혼자서 붙잡을수 있다고 그러느냐?》

《그 말을 잡는데는 힘과 용맹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지혜와 인내성이 요구되는줄로 아옵니다. 옛 성인들도 이르기를 강한 적은 꾀로서 굴복시키라 하지 않았나이까.》

《그래 어른의 옷을 나무가지에 걸어놓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말이 영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았느냐?》

《야생마가 아무리 조심스런 짐승이라도 위험이 느껴지지 않는 대상물앞에서는 방심하기마련이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는 쉽게 떠날수 없는 자기의 보금자리와 생활터전이 있사온데 이 야생마에게는 청계골이 정든 보금자리요,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한 생활터전이옵니다.

만일 저 흰옷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만 야생마가 갖게 된다면 말은 반드시 샘을 찾아오게 될것이 아니오이까. 그때 제가 저 옷을 입고있으면 손쉽게 말을 붙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나이다.

실제로 처음 며칠동안은 저 옷을 보고 무서워 그냥 달아나군 하던 야생마가 어제부터는 스스럼없이 샘터에 내려와 제 할바를 다하고 있사옵니다.》

단군의 묘안이 그럴듯 하게 여겨져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던 환웅은 아들의 마지막말에 그만 놀랐다.

《응?! 그게 정말이냐?》

《이제 좀 있으면 야생마가 나타날테니 그때 아버님께서 직접 보시오이다.》

거침없는 아들의 대답에 환웅은 제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좋다. 그럼 어디 한번 기다려보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되오니 저와 함께 잠시 몸을 숨기소서.》

단군은 이렇게 말하고 제 먼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환웅은 물론 한쪽에 읍하고 서있던 호위군사도 단군의 뒤를 따랐다.

환웅의 일행이 단군의 뒤를 따라 다달은 곳은 샘터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기는 했어도 샘터가 한눈에 보이는 산비탈의 덤불속이였다. 그곳은 샘터보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고 풀숲이 무성해서 샘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다.

단군과 환웅의 일행이 그곳에 몸을 감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아버님, 말이 저기 나타났소이다.》

단군의 속삭임소리에 환웅과 호위군사는 다같이 샘터쪽을 흘어져라 바라보았다.

정말 어디서 나타났는지 야생마가 호기스런 모습으로 샘터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내려오고있었다.

긴장된 시선으로 야생마의 행동을 주시하고있던 환웅과 호위군사의 입에서는 동시에 《아!》 하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놀라웁게도 야생마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흔연스레 샘터에 다가가더니 머리를 박고 쭈룩쭈룩 걸탐스레 샘물을 마시기 시작했던것이였다.

이윽고 물을 량껏 들이킨 야생마는 그제서야 나무가지에 걸쳐있는 흰옷을 힐끗 바라보더니 거기에 성큼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 옷에 주둥이를 비벼댔다. 물묻은 주둥이를 닦느라고 그러는것이 분명했다.

(흠, 놀라운 일인지고.)

환웅은 감탄어린 눈길로 옆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샘터를 주시하고있는 단군의 입가에서도 기쁨의 미소가 남실남실 피여나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환웅은 가슴에 별안간 뜨거운 련민의 정이 찌르르 스며들었다.

(야생마를 저렇게 만들기 위해 이녀석이 새벽마다 수고인들 오죽했을고.)

참으로 어린 소년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궁냥과 인내력이라고 환웅은 생각했다.

옷가지에 주둥이를 비벼댄 야생마는 그후에도 샘터주변을 천천히 거닐며 한참동안이나 풀들을 뜯어먹은 후에야 오던 길을 따라 스적스적 사라져갔다. 야생마가 멀리 물러가자 환웅은 환하게 웃었다.

《하하, 참 영특하다. 어떻게 그런 엉뚱한 생각을 다 했느냐?》

환웅의 칭찬에 단군은 게면쩍은듯 얼굴만 붉혔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저 옷속에 감쪽같이 숨기만 하면 되겠구나. 래일 새벽이라도 당장 일을 시작하자꾸나.》

환웅은 벌써부터 옷속에 숨었던 아들이 야생마를 덮쳐잡는 통쾌한 장면이 눈앞에 안겨왔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